

이베로아시아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021

Vol.32 No.3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ILAS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이베로아메리카연구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로서 스페인, 포르투갈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언어, 문학, 문화, 역사 및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편집위원장 이 성 훈 (서울대학교)

편 집 위 원 김 종 섭 (서울대학교)

김 항 섭 (한신대학교)

김 현 균 (서울대학교)

노 성 일 (퍼듀대학교)

로버트 맥키 어원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

박 구 병 (아주대학교)

박 병 규 (서울대학교)

박 정 원 (경희대학교)

심 상 완 (단국대학교)

월터 미놀로 (듀크대학교)

이그나시오 로베스-갈보 (캘리포니아 메르세드대학교)

임 수 진 (콜리마대학교)

임 호 준 (서울대학교)

편 집 간 사 박 도 란 (서울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32권 3호 (2021)

2021년 12월 25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 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 4280
팩 스 02 882 6508
전자우편 iberoamericana@snu.ac.kr
홈페이지 <http://snuilas.snu.ac.kr>
인 쇄  02 313 3116



점차 다변화되어 가는 국제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성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이해가 요구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페인어·포르투갈어권은 5억 명 이상의 인구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물론이고 미국 남부, 아프리카 일부까지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권이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영향력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층적 지역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89년에 스페인중남미연구소로 출범한 이래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해외의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문적 발전은 물론 이 지역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실천적 지역 연구의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 동안의 연구 수행 성과와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두루 인정받아 2007년 인문학국사업 유망연구소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인문학국사업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이에 발맞춰 2012년부터 정기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를 연 3회 발간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관련분야 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스페인, 포르투갈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목 차

일반논문

- 001 A Variationist Approach to Tag Questions in Madrid Spanish
– The Case of ¿no? and ¿eh? –
Jihee Hwang
- 027 De lo que se puede decir sobre el desgaste semántico:
en torno a los verbos auxiliares del español y del coreano
Sangyoon Kim
- 055 상호텍스트성으로 읽는 『죽장의 가을』:
콜럼버스와 루벤 다리오의 기능을 중심으로
송병선
- 079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와 까르멘 보우요사(Carmen Boulosa)의
『사라지는 게 더 나아 *Mejor desaparece*』(1987)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변신 서사로서의 ‘식물-되기(becoming-plant)’
김선영
- 101 「남부」와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보르헤스의 인식
우석균

